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만족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Job Satisfaction on Self-Efficacy: Mediation by Disability Acceptance among Public Assistants with Disabilities

최정아*

경일대학교*

Choi jung-ah*

Kyungil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직무만족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을 장애수용정도가 매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주민센터 253개소의 장애인행정도우미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자기효능감, 장애수용,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수용은 직무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애수용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 서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고용은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어왔다¹⁾. 이러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가운데 행정도우미는 전국의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장애인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공형 성격의 일자리로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한 보호고용 뿐 아니라 추후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까지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¹⁻²⁾. 따라서 장애인이 이러한 행정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능력 및 태도 등을 경험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직무만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러한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되,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253개소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행정도우미 2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응답이 불성실한 17개의 자료를 제외한 236개의 자료에 대하여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자기효능감은 10문항으로 구성된 GSE(General Self-Efficacy Scale)³⁾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02이었다. 장애수용은 Kaiser 등⁴⁾이 개발한 뒤 수정된 장애수용척도 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16이었다. 직무만족은 Smith 등⁵⁾이 개발한 후 수정된 직무기술척도 가운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게 적합한 19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917이었다. 구조방정식은 측정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의 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경로	b	β	SE	t
자기 효능감	→ se1	1.000	.565		
	→ se2	1.749***	.809	.197	8.864
	→ se3	2.002***	.905	.215	9.327
	→ se3	1.791***	.845	.197	9.068
장애수용	→ da1	1.000	.921		
	→ da2	.859***	.629	.116	7.376
직무만족	→ js1	1.000	.510		
	→ js2	1.338***	.814	.184	7.263
	→ js3	1.451***	.846	.201	7.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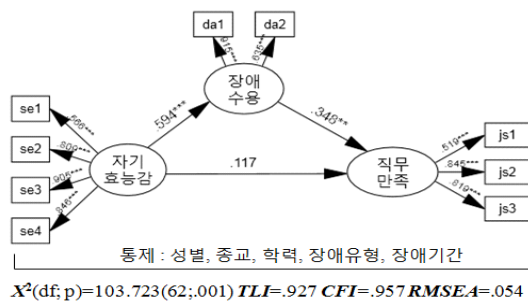
$X^2(df;p)=57.908(24;.000)$ TLI=.945 CFI=.964
RMSEA=.078

*** p<.00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변수로부터 각 측정변수들로의 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장애수용, 그리고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p<.001. 표준화계수. 오차항 및 통제변수경로 생략.

▶▶ 그림 2. 구조모형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수용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수용 역시 직무만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애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사이의 관계에서 가지는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Z	유의도(p<.05)
자기효능감 → 장애수용 → 직무만족	2.740	유의

IV. 결론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장애수용을 통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이들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장애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행하게 되는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게서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장애수용 정도 역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행정도우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전략으로서, 장애수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보건복지부, “2013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서울, 2013.
- [2] 최수찬, 손인봉,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지각한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행정도우미로 근무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3권, 제3호, pp.105-134, 2013.
- [3] Schwarzer, R. and Jerusalem, M., “Generalized Self-Efficacy scale”. In J. Weinman, S. Wright and M. Johnston, Measures in health psychology: A user's portfolio. Causal and control beliefs (pp. 35-37). Windsor, UK: NFER-NELSON, 1995.
- [4] Kaiser, S. B., Wingate, S. B., Freeman, C. M., and Chandler, J. L.,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32, No.2, pp.51-58, 1987.
- [5] Smith, P. C., Kendall, L. M., and Hulin, C. L.,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A strategy for the study of attitudes”, Chicago, ILL: Rand McNally Co., 1969.